

할아버지 회상기

柳 錫 春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 가지 상반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손자인 나를 무조건으로 귀여워하며 보살피 주시던 따뜻한 모습이다. 아주 어릴 적부터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나는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의례 할아버지의 ‘뺨’을 동원하여 그 일을 성사시키곤 했다.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때였다. 장작으로 나무 칼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하는 나를 할아버지가 편들어 주셨다. 결국 나는 나무칼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고, 그 칼을 휘두르고 다니며 동네 아이들에게 ‘뺨’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 나를 나머지 식구들은 영 달가워하지 않았다.

특히 나이가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막내 고모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동안 독차지해왔던 할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어 곳곳에서 나와 으르렁거리며 부딪쳤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할아버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나의 승리였고, 고모에게는 나이값도 못한다는 꾸지람만이 돌아가곤 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나는 집안에서 작은 ‘왕’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억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선비의 기품과 예절을 갖추어 엄격하고 절도있는 생활을 하시던 할아버지를 나를 포함해 우리 식구는 모두 무서워하였다. 외출을 하실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 계시실 때에도 절대 의관을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었고, 방에는 먼지하나 있을 수 없었다. 사랑방에서 기침소리라도 들리면 온 집안 식구는 모두 가슴을 졸이면서 또 무엇이 잘못되어 불호령이 떨어지나 하고 불안해 하였다.

고등학교에 다닐적 친구들과 몰려 이집 저집을 오갈 때 우리집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쓰던 방이 할아버지가 계시던 바로 위 층이었기 때문이다. 혜화동에 있던 우리 집은 일제시대 때 지은 2층 목조건물이어서 우리들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소리를 어찌할 수 없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였다. 밤늦게 술이라도 마신 친구를 달고 집에 오는 날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다.

따뜻하지만 엄격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 반드시 생각나는 장면이 몇가지 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다. 아버지가 동경 특파원으로 일하게 되어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은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가고 나와 남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둘째 고모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요즈음 대학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국민학생 대부분이 과외공부를 할 때였다. 내가 살던 송인동에서 광화문의 덕수 국민학교까지 나는 매일 점심과 저녁 도시락 두 개가 든 큰 가방을 가지고 버스 통학을 해야 했다. 밤 늦게 과외공부를 마치고 돌아 오는 내가 안쓰러우셨던지 할아버지는 매일 버스 정거장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그리고는 내 가방을 받아 들고 아무 말없이 앞장서 두

寄孫兒錫春渡美留學以資觀省

一 確立志

二 慎疾病

三 勿犯危

四 勉學業

五 戒懶怠

六 擇良朋

七 數寄書

辛酉八月十三日 一也老僮

벽두벽 집으로 향하였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두개의 우산이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때 느끼곤 했던 할아버지의 사랑 덕택에 나는 그 힘든 시절을 구김살없이 보낼수 있었나 보다.

1981년 여름 유학을 떠날 때였다.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더니 붓으로 손수 쓰신 두루마리 한지 한 장을 펴 보이시는 것이었다. 혼자 떠나 보내는 장손의 유학길을 걱정하신 나머지 7가지의 교훈을 또박또박 한문으로 적어 나에게 주시고는 아무 말씀없이 눈길을 돌리셨다. 지금도 나는 이 붓글씨를 내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 보곤 한다. 아예, 표구를 하여 집에 걸어 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유학을 떠나기전 약혼해 두었던 지금의 아내와 나는 1982년 여름 결혼식을 올렸다. 폐백을 드릴 때 할아버지는 손부의 손을 붙잡고 '갈 때는 두 식구지만 올 때는 세 식구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결혼한 이듬해 여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 식구가 미처 셋이 되기 전에,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식구가 셋이 아니라 넷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었을텐데. 요즈음 제사 때마다 증조 할아버지께 절을 올리는 다지와 지한이를 보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비였다. 거처하시던 사랑방 책장에는 오래된 한문서적이 그득하였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언제나 소리내어 읽곤 하셨다. 사랑방에 손님들이 찾아 오시면 일부러 나를 불러 옆에 앉히고는 말씀 내용을 듣도록 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할아버지와 비슷한 유생들이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사랑 손님 중에는 지금 내가 있는 학교에서 은퇴하신 李家源 교수같은 분들도 계셨고 타계하신 서울대학교 崔載喜 교수도 계셨다. 그때 할아버지께 한문 배우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다행히 고향에 있는 안동대학 도서관에서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책들과 아버지의 책들을 모아 할아버지의 호를 따 <일야문고>라 이름 붙이고 공개하고 있게 되니 기쁘고 자랑스런 마음이다. 손자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고향의 대학이 이어받아 지혜를 갈고 닦는데 일조를 하게 되니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살아 우리곁에 계신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필자 柳錫春은 一也公의 長孫이다. 1955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출생하여 중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4년에 동아일보의 인촌 펠로우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환교수로 1년간 연구한 바 있다. 저서로는 《發展과 低發展의 比較社會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등 다수가 있다.